PRESS RELEASE 배포일자: 21.04.08

제놀루션, NGS 방식 HPV 분석 플랫폼 본격 글로벌 시장 확대

▶ 제놀루션 GYNseq® HPV 100 typing NGS G Kit, CE 등록 및 수출용 품목 허가 완료

▶ 신기술 적용을 통한 제품라인업의 강화로 매출의 지속적인 성장세 기대

▶ 진단기기 사업역량과 글로벌 네트워크 활용하여 신제품 시장 점유율 확대

<2021-04-08> 제놀루션 HPV NGS 제품의 글로벌 시장 확대가 가속화될 전망이다.

체외진단기기 전문기업 제놀루션(225220, 김기옥 대표이사)은 HPV NGS 제품인 GYNseq® HPV 100 typing NGS G Kit가 국내 뿐만 아니라 CE 등록 및 수출용 품목 허가를 받았다고 8일 밝혔다.

제놀루션은 지난해 SML제니트리와 ODM(제조업자 개발생산)사업 방식의 협업으로 NGS(차세대 염기서열 분석법)기반 HPV(인유두종바이러스) 분석 플랫폼 개발에 성공했다. SML제니트리는 세계 최초 NGS 방식의 HPV 분석 플랫폼을 개발한 분자진단 전문기업이다.

NGS 방식의 HPV분석 플랫폼은 보다 빠르고 간편하면서 대량의 샘플(Sample)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 분석법으로 100여종의 HPV 타입을 동시에 구분 가능하다. 기존 검사법 대비 정확도가 높은 차세대 검사법으로 급성장중인 HPV 검사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다.

제놀루션은 다년간 쌓아온 진단기기 사업역량과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이번 신제품을 적극적으로 판매해 나갈 계획이다.

실제로, 제놀루션은 코로나19 이후 유럽, 아시아, 북남미 등 70여 곳의 대리점을 통해 글로벌 네트워크를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그 결과, 전체 매출의 90% 이상이 해외에서 발생하며 회사의 글로벌 사업부문과 기술력에 대한 경쟁력을 입증했다.

제놀루션 김기옥 대표이사는 "전 지역으로 빠르게 유통망을 구축한 만큼 이를 활용해 신규사업의 판매를 늘려 매출의 지속적인 성장세를 이어갈 것"이라며 "이번 유럽등록과 품목허가를 통해 글로벌 시장 확대에 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놀루션 김기옥 대표는 '한국을 빛낸 이 달의 무역인' 행사에서 이 달의 무역인으로 선정된 바 있다.